

재무부 장관 후보(Scott Bessent)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

- 1.16(목)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
- (모두발언) 트럼프 당선인이 세로운 경제 황금기(new economic golden age)를 펼칠 기회(generational opportunity)를 맞이함
 - 미국이 취약한 공급망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, 미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함
 - 재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친화적인 정책(규제 완화, 감세 및 에너지 증산)들을 이행할 것이며,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
- (질의·응답) 주요 질의인 감세, 관세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, 미-중 관계, 제재, 연준의 독립성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(감세)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감세·일자리법 연장은 가장 중요한 현안(singl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)이며, 만료(올해 말) 전에 연장되지 않으면 증세 규모(4조달러)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임
 - 세수 감소는 지출 축소(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Medicare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유지) 등으로 대응하고 재량적 지출(discretionary spending)을 조정해야 함
 - 부채한도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협조할 것임(국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를 희망)

- **(관세)**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(탄소세도 포함 가능)은 ①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② 세수 증대(revenue raiser) ③ 비교역적 협상(예: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국경 단속)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 - 10% 보편관세를 시행하면 달러화 가치가 4% 정도 절상하게 되므로 관세의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, 관세 대상국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
- **(IRA)**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, 미국 내 희토류 채굴 증가를 위한 노력(관련 IRA 조항은 45X)은 지지
- **(미-중 관계)**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와 그간의 무역 흑자를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해 왔으며, -4% 디플레이션, 흑독한 경기 침체 등 여러 경제 문제를 수출로 해결하려고 함
 -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 합의사항인 농산물(옥수수 및 대두) 수입을 이행해야 하며(지난 4년간 미이행 물량 포함),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출 통제 품목(AI, 양자컴퓨팅 등 관련)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도입해야 함
- **(제재)** 그간 對러시아 제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, 트럼프 당선인이 지지한다면 러시아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함
 -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면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도 가능
- **(연준의 독립성)** 통화정책 결정에 관한 FOMC의 독립성 유지를 지지
- **(기타)**
 - 미국이 CBDC를 개발할 필요는 없음(다른 국가들은 필요에 의해 도입)
 -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강하며, 은행의 경우 자본적립 규모가 과도할 수도(perhaps over-capitalized) 있다고 봄
 -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함(주 차원에서 결정할 필요)